

농민단체장 오찬 중 말씀

선 대책 후 개방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초청에 응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많으실 텐데 FTA까지 겹쳐서 더 어렵고 힘들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야 될 것은 열어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 정부도 힘겹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 때부터 개방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속도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길을 마련하고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 대책 후 개방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부 부처 간에도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농업도 시장원리에 따라 당연한 질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각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은 외롭습니다. 시장원리대로는 안 된다고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 주장은 시장 원리에 안 맞거나 투자의 효율성 원칙에 떨어진다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도 농림부 장관이 안을 만들고 설득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산액수와 여러 가지 정책 가짓수, 아이템 등이 거의 수용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농민들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지 불안하다며 반대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관찰해서 즉각 즉각 대응하려고 합니다. 농업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 농촌은 꼭 지켜내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신뢰와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정부 정책이 곧이 들릴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데 노력하겠습니다.